



해류와 가족의 영향력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감동적이고 의미깊은 이 말씀은 킴블 대관장께서 1974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전하신 말씀이다. 대관장님의 지시에 따라 개인과 가족이 다시 공부하도록 이 말씀을 다시 실는다.

나는 지금까지도 내가 처음으로 빙산을 보았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937년, 나는 킴블 자매와 함께 처음으로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기선을 타고 세인트 로렌스 강을 지나 북대서양을 거쳐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행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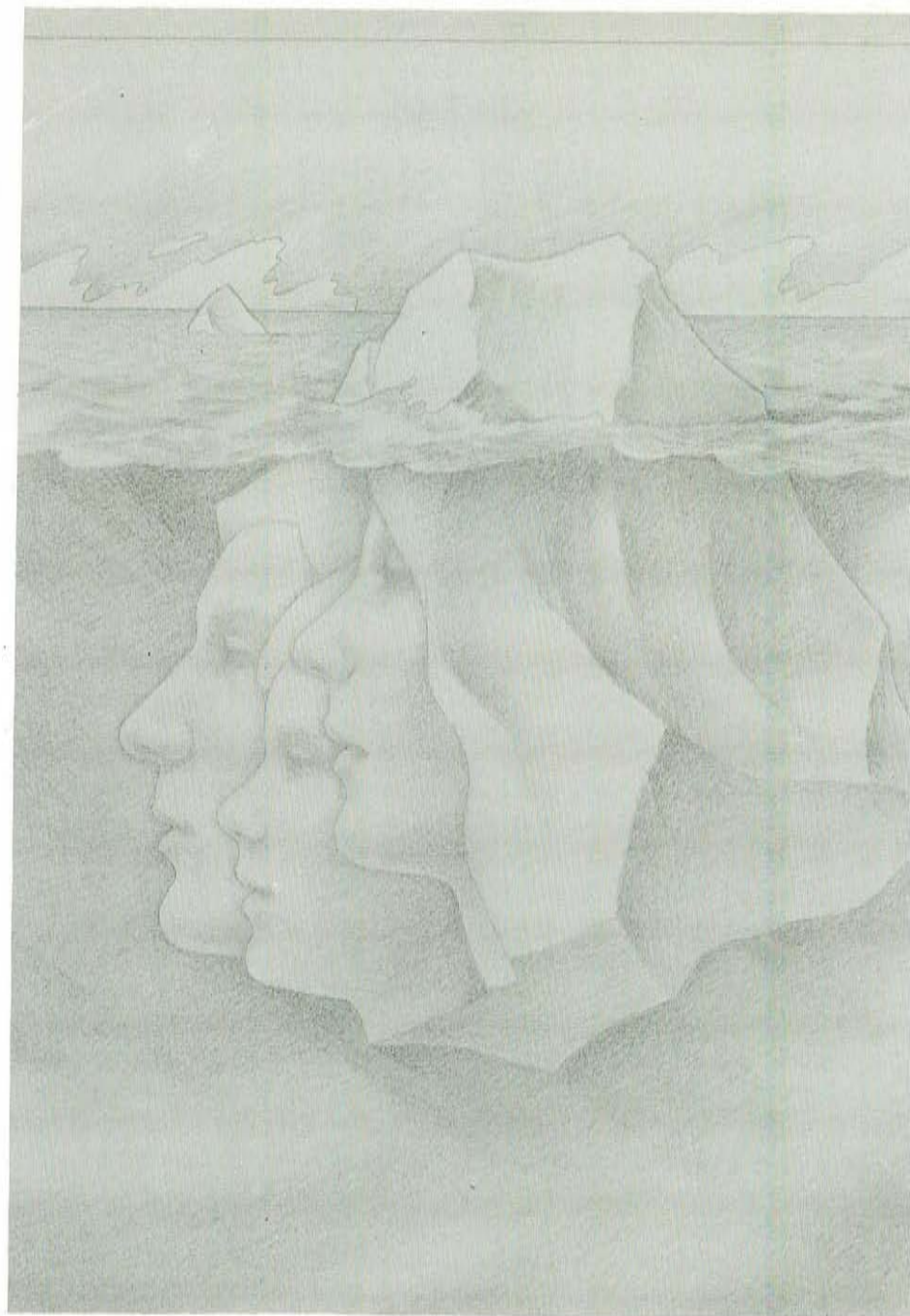
배가 대양 한 가운데에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 넣는 일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빙산을 본 것입니다. 승객이 모두 빙산을 보기 위해 갑판으로 몰려 들었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검푸른 바다와 푸른 창공에 위용을 드러낸 빙산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빙산은 험준한 산에 우뚝 솟은 봉우리라도 같이 조용히 물에 떠 있어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빙산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들었지만 처음으로 험준한 얼음산을 눈 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빙산을 보자 나는 대서양 건너 항해 중 침몰된 타이탄호가 생각났습니다. 1912년 4월 14일 저녁 늦게, 거대한 빙산이 새로 건조된 대형 기선을 침몰시킨 것입니다. 대부분 영국과 미국의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첫 승객 중 1503명이 배가 침몰할 때 물에 빠져 사망하였으며, 703명만이 구조되어 목숨을 건졌습니다.

1970년대 초에 우리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상에서 그리인란드를 지나면서 다른 빙산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구름 위에서 보았으나 우리





가 그리인란트를 지날 때에는 날씨가 개여서 하늘에는 구름이 한 점도 없었습니다. 태양이 눈부시게 내리 비쳤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장관은 좀처럼 보기 힘든 것입니다. 멀리 보이는 눈 아래 그 크고 둥근 섬 위에 얼음이 담요처럼 덮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꺼운 얼음 덩어리가 계곡을 흘러 내려와 부서져서 얼음 조각이 되어 바다로 떠내려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해안은 바다로 떠내려가는 얼음 덩어리로 가득 찼습니다. 약 30여 년 전에 우리가 본 해아릴 수도 없이 많은 빙산의 본 고장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리인란드 얼음판에서 생긴 빙산은 대체로 정해진 코스로 흘러 내려갑니다. 래브라도오 해류가 끊임없이 배편만과 데이비스 해협을 지나 남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있어도 이 얼음산을 안고 갑니다. 빙산이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해류는 표면의 바람보다 훨씬 막강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는 의로운 부모의 가르침에 의해

서 가정에서 정리되고 발전된 우리 생활의 조류가 파도가 들끓는 세상의 모든 풍파나 악영향을 이기고 자녀가 가야 할 방향을 이끌어 줄 때 우리 생활에 오는 결과를 세상적인 힘의 투쟁과 비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대양의 파도 아래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놀라운 힘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그와 비슷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가장 큰 강도 대양의 해류에 비하면 한 달 작은 시내에 불과합니다. 해류 중에서도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래브라도오 해류입니다. 두번째로 큰 것이 멕시코 만류로, 이 해류는 미국 동부 해안과 평행하게 있는 멕시코만의 동부에서 더운 해류를 끌고 대서양을 건너 유럽 해안까지 날라 줍니다. 래브라도오 해류는 매년 그리인란드로부터 멕시코 만류가 흐르는 곳까지 수천 개의 빙산을 날라 줍니다. 타이탄호가 그 운명을 고한 곳도 바로 래브라도오 해류와 멕시코 만류가 마주치는 곳이었습니다.

빙산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부분적으

로만 눈에 띄는 힘에 의해 진로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빙산이라기보다는 배에 좀더 가깝다고 하겠읍니다. 우리는 자신의 동기를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가졌으므로, 우리가 해류를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이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의로운 삶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흐르는 해류를 만든다면 우리 자신과 자녀들은 고난, 실망, 유혹 등의 역풍에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과 성인들이 심한 풍파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과연 이겨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유행의 바람은 많은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불어 닥칩니다. 성적인 유혹의 바람은 이에 빠진 사람의 결혼 생활을 망치고 밝은 앞날을 망치고 밝은 미래를 흐리게 하며 그를 타락하게 합니다. 습관성 약, 신성 모독, 외설의 수령에 빠진 나쁜 친구들은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강력하게 꾸준히 인도되지 않을 때 우리를 실족시켜 버립니다. 우리 삶의 해류는 부모나 가정 생활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깨끗하고 성스럽고 진실되고 힘차며 영향력이 있고 세상의 힘에 굴하지 않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이며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배웠읍니다. (아브라함서 3:22 참조) 이러한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인간의 독특한 존엄성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가끔 훌륭한 집안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반항하며 의의 길을 이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항하여 싸우는 예를 보아 왔읍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행동에서 의로운 해류가 되어 모범으로 가르치고 생활하려고 최선을 다한 부모에게 슬픔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나는 이처럼 수년간을 방황하고 해마다가는 성숙해져서 자신에게서 결여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큰 공헌을 하게 되는 사람의 예도 많이 보았읍니다. 내가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그들이 온갖 역풍을 받고 고생을 하게 되지만 그것보다도 그들은 그들이 자라온 가정이라는 생활의 해류에 의해서 그들이 느끼는 것이 상으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후에 그들이 어린 시절에 즐겼던 분위기를 그들의 가정에 다시 재현하고 싶다고 느낄 때 그들은 부모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했던 신앙 생활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의로운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항상 옳은 길에 잡아 둘 수 있는 보장책은 없으나 부모가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 그들을 잃게 마련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자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공고 좁은 길”로 이끌지 못한다면 유혹의 파도나 바람과 악이 그들을 바른 길에서 이탈시켜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흠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자녀에게 건전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로운 부모는 마지막 날에 흠없이 심판대에 서게 되며, 전부는 아니라도 자녀를 구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사이야는 우리 영혼의 싸움을 이렇게 설명하엿읍니다.

“무릇 육으로 난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때로부터 하나님의 적이요, 성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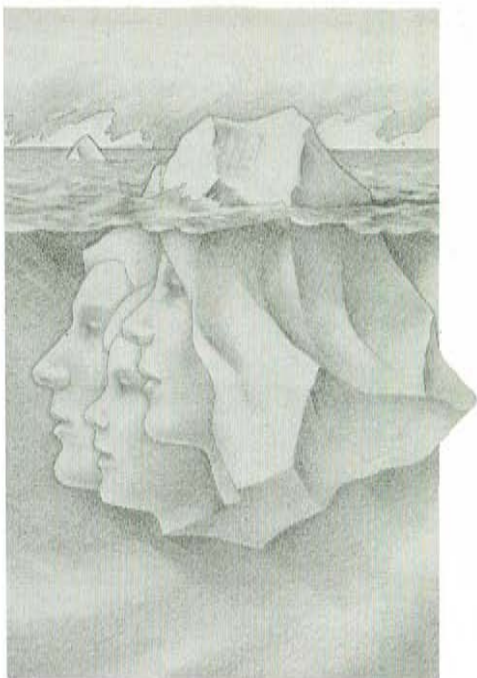
인도하는 대로 맡겨 육으로 된 자기를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 아이같이 되어 유순하고 온유 겸손하며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여, 주께서 인간에게 합당하다 여기어 내리시는 모든 것에,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하듯 기꺼이 순종하지 아니할진대, 영원토록 하나님의 적이 되리라.” (모사이사서 3:19)

“육으로 난 인간”이란 자신의 영적인 속성을 가볍게 보고 동물적인 욕정에 쉽사리 굴복해 버리는 인간을 말합니다.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적응하겠다는 서약을 맺은 안정된 결혼이 진정한 부모가 되는 시작입니다. 것처럼 진정한 기초를 가진 우리의 자녀들은 평화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현대의 분석가들은 급변하는 세계에서 인간은 지속성을 잃게 되는 것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이와 같은 유동성은 우리의 자녀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거나 조부모, 삼촌, 아주머니, 가까운 이웃 등의 관계를 잃어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해 줍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들은 영원히 함께 속하고 있으며, 가정 밖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 가운데는 결코 변할 수 없는 기본적인 유대가 있다는 느낌을 가족들에게 심어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친척들과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신을 교환하며, 방문하고, 친족 활동에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안고 사랑하며 또한 그들이 영원히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기쁘다고 말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되시는 분은 단



지 상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값이 비싸지는 않으나 놀라운 선물감을 사다 준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집에 장미를 사 가셨거나, 집에서 특별한 음식을 요리했거나, 생활을 보다 훈훈하고 사랑이 깃들게 하기 위하여 일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건축 기금 모금이나 적십자 기금 모금 운동에 협조하시거나 토요일 저녁 한때를 미망인 가정 돕기 운동에 참여하실 계획이라면 이 사실을 자녀에게도 알려시고, 가능하다면 그들도 결정하는 데 참여시키고 내려진 결정에 실시되는 일에도 참여시키십시오. 가족이 모두 가족 중 한 명의 침례, 확인, 안수 등 모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축구 팀에 든 아들을 응원하러 게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가정의 밤, 식사 시간, 가족 기도에 정규적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십일조 헌금에 참여하여 교훈과 모범으로 아름다운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가정은 특별한 경우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모두가 주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 정규적으로 갖는 진지한 기도입니다. 그저 기도만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가족의 복리를 위해 알아야 하고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밝혀 주신다는 신앙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신지를 보려고 어린 자녀가 눈을 뜨고 살쾨다는 이야기처럼 기도란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학업 때문에 멀리 다른 지방으로 가거나 아내가 긴장감으로 고생하거나, 가족 중에 누가 결혼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인도를 간구할 때 가정은 축복사로서의 책임을 갖고 이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아버지가 부재중일 때 어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자녀에게 주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부여된 신권의 권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의로움 가운데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빙산과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배처럼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자신을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해류의 흐름을 안다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미에서 대서양 연안 항

구로 가는 크고 많은 기름 탱크나 유조선은 항공기가 공중의 제트 기류를 타듯이 멕시코 만류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류와 싸우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해류는 어쩔 수 없이 큰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게 됩니다.

피어리 제독이 북극을 여행할 때 그는 섬과 같은 빙산 위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가 개를 데리고 북쪽을 향해 달리고 있을 때에도 그 빙산은 해류에 의해서 더 빠른 속도로 그를 남쪽으로 밀고 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정은 우리의 특별한 안식처이며, 가정과 가족은 우리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회를 통해 가정 생활, 가족 생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부모와 자녀에 관해 많이 들어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살도록 계획하신 방법입니다.

대회를 마치면서 우리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하늘에 계신 주님의 축복도 전해 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가 종사하는 이 사업이 주님의 사업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살아 계시며, 아담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 요단강 독에 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고 하시며 세상이 모두 의지해야 할 아들을 세상에 소개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우리가 경배하고, 변형의 산에 나타나서,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약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힘써 온 종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다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마 17:5)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압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뉴욕주에 나타나셔서 니

파이인에게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오랫동안 암흑 속에서 떠내려 가던 세상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 스미스 이서:17)고 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나는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우리가 속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압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리와 정책과 프로그램을 가르칩니다. 나는 우리가 모두 주님이 주신 프로그램에 따라 생활하고 실천한다면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안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을 할 때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의 목표인 의로운 생활을 향하여 흐르는 강하고 즐거운 해류를 만들 수 있다.

2. 경전으로부터 우리는 모두 영원한 존재이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것을 알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독특한 감각을 갖게 된다.

3. 가정에 있어서의 생활의 해류는 자라는 자녀에게 그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영향력은 그들이 수년간 방황한 다음에라도 의의 우리로 돌아오게 해줄 수 있다.

4.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적응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안정된 결혼이 전진한 부모가 되는 시작이다.

5. 여러분이 자녀를 안고 사랑하며 또한 그들이 영원히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기쁘다고 말한 지가 얼마나 되었나?

가정은 특별한 경우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모두가 주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토론시의 유의 사항

1. 영원한 가족이라는 인식을 창조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을 이야기한다. 가족이 그들의 느낌을 함께 이야기하게 한다.

2. 이 기사에는 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읽고 토론할 성구나 인용문이 있는가?

3. 방문하기 전에 가정과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 토론이 더욱 효과적일까? 우리 생활에 미치는 가족의 영향력에 관하여 정원희 지도자나 감독이 가장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의로운 삶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흐르는 해류를 만든다면 우리 자신과 자녀들은 역풍에도 이겨내고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

올바른 상을 심어 줌

세리 존슨

나는 바느질을 배울 때 어머니께서 천에 지퍼를 다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듣고 매우 당황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듣고 이해하려고 애써도 어떤 한계 이상으로는 그 가르침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그것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다시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어머니께 여쭙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어머니가 가르치시는 동안 이미 지퍼를 완전히 부착시킨 것을 보거나 또한 바느질하는 동안 그것을 보면서 작업을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뒤로 이 원리가 우리 생활의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의사 전달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상대의 마음속에 어떤 개념의 윤곽이나 그림을 심어 주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내가 경험한 아주 감동적인 일로 해서 이런 정신적인 그림이 나의 영적인 발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두고 매일 경전을 공부할 때 오는 보상에 대하여 들었지만 성공적으로 그 습관을 붙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일상 생활에서 경전

공부 습관을 철저히 몸에 익힌 다섯 사람과 어떤 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경전 지식을 갖추었음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낙담하는 것을 피하고 올바른 지침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경전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나는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만일 나에게 그렇게 경전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 있다면 내 생활이 얼마나 더 나아질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과 자신의 값진 가치에 대한 훌륭한 정신적인 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며 어떤 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상은 자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도록 해줍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정신적인 그림과 상이 선행합니다. 이런 상이 우리의 의로운 진보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탄은 사람을 속박으로 인도하기 위한 원리를 사용합니다. 만일 그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죄를 타고났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교회나 의로운 사람 옆에 있을 때 불편해지며

주님의 길로부터 멀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죄가 많고 구속에 대한 희망이나 소망도 없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그러한 관념에 편안한 길을 찾고 마침내 “지옥의 사슬에 얽매이”(엘 13:30)게 될 때까지 죄를 고집하게 됩니다.

반면에, 만일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한다면 더욱 더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자아상이 자라고 성숙해짐에 따라 우

리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질과 특성 즉 온화함, 사랑, 정직, 사려깊음, 명랑함 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는 속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엘마는 그의 백성에게 의로운 자아상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네 몸에 지녀 보았느냐? …… “너희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가 불멸의 몸으로 일어나며, 이 무질서한 혼란이 정연히 정리되어 육체로 세상에 있을 동안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심판받을 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날에 주께서, 내게로 오라 너희 복 받은 자여, 너희가 수고하여 지상에서의 의로운 일을 행하였도다 하신 것을 기뻐할 수 있느냐?” (엘 5:14-16)

엘마는 백성들이 주님의 길을 시험하게 해줄 중요한 한 가지 단계는 그들이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림으로 형성하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릴 때 그들에게 이런 정신적인 상을 심어 주어 그 상이 그들의 행동을 인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부모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의로운 상을 심어 주는 가장 정통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경전과 가족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는 자아상은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이신 로버트 더 영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만 95세까지 사셨으며 내가 만 14세가 되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치 내가 발걸음을 땀 때마다 그분이 함께 걸으시며 가르치신 것처럼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에 대한 추억은 별로 없지만 그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이 그 할아버지께서 십대 소년이었을 때 다른 카우보이들과 함께 소 떼를 플로라도주로부터 텍사스로 몰고 가는 일을 하셨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여행을 하는 처음 며칠 동안은 가족은 아무도 없고 매우 부자인 그 소 떼의 주인이 그들과 함께 있었으나 다른 일을 보기 위하여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 카우보이들이 텍사스로 가는 동안 우리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카우보이들은 여가 시간에 할아버지가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수학이나 기계 공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날 밤 다른 카우보이들은 안전하게 도착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가까운 마을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할아버지도



메리고 가려 했으나 할아버지는 자신이 소를 돌보기 위하여 고용되었다고 주장했으며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소 주인이 돌아와서 할아버지 혼자서 소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감동하여 할아버지가 동업자가 되어 준다면 자기의 모든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아버지는 평생 동안 아무 부족한 것 없이 살 수 있었겠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같이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수없이 “나는 꼭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또 어떤 때는 “지금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자문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가족 역사에서 나오는 그런 훌륭한 이야기는 자녀가 자신의 거룩한 잠재 능력에 대한 상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네가 그것과 꼭 흡사하구나”, “그것은 꼭 네가 할 것같이 들리는구나”라는 등의 말을 통하여 그들이 훌륭한 모범을 따르도록 더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설교하고자 하는 욕망의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의 효과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께서 인간으로서 결점과 약점도 있었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결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마음놓고 좋은 것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의로운 상을 심어 주는 한 가지 비결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강조해서는 거기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자

녀가 고수하고 또한 닮아갈 정신적인 자아상을 만들게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친척, 이웃, 교사, 지도자 및 다른 사람들이 자녀에게 훌륭한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미덕을 말로써 확인해 주고, 자녀가 있을 때 그들이 신앙을 북돋아 주는 그들의 이야기와 간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유익한 것을 굉장�히 많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한 아름다운 친구가 우리 집을 방문하여 그녀가 남편을 처음 만난 이야기를 할 때 딸들의 반응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 친구가 만일 그때 유혹에 빠져 그의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했다면 나중에 결혼한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었으리라는 것을 설명했을 때 딸들의 눈에 빛이 났습니다. 딸들은 마치 건조한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딸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마 내가 그런 원리를 설명하려고 애썼다면 딸들은 내가 “설교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친구의 열성과 영과 사랑이 그 경험을 기념할 만하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한번은 내가 방팡빠가 부러진 80대의 명량한 할머니와 병원의 한 방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혹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다시 걸을 결심을 하고 있었으며 신앙과 낙천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퇴원한 지 몇 주일 지나서 나는 딸들을 메리고 이 훌륭한 할머니와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의 방문은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한 신앙과 사랑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4년이 지났지만 딸들은 아직도 복음의 생활로 연물을 쌓아가며 얻는 신앙과 기쁨과 사랑

에 대한 그 감동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 자녀가 가능한 한 많이 접촉하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그들의 가장 강력한 모범이 되어야 할 두 사람은 우리 즉 그들의 부모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처럼 내가 지니고 있는 결점이 나쁘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너무나 쉽게 나의 결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종종 실망하게 됩니다. 나는 자녀에게 합당한 자아상을 심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들에게 바라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은 자녀 앞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배우자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어떤 현명한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그 부부는 좋은 특성을 대부분 모른 채 넘어가는 반면 나쁜 습관과 특성은 불쾌한 결과로 인하여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는 세상 경험은 적은 어린이가 좋은 특성을 못보고 넘어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자녀에게 합당한 상을 찾아 내게 해주기 위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에게 자기 배우자의 덕성을 알려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작은 증고는 황금과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주유소에 기름값을 내러 간 동안 차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남편을 기다리며 나는 기회를 보아 “저 특별한 분을 보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려고 몹시 노력하는 분이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아버지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그 중

에 한 가지라도 아는 것이 있니?” 점심을 주면서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나는 네 아버지의 감수성이 풍부한 점을 좋아한다. 어제 조운즈 자매가 간증할 때 아버지가 흘리는 눈물을 보았니?”

이런 질문은 하나의 상을 만들어 줄 뿐 아니라 사실상 자녀에게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이 내가 너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해줄 특성이다.”

자녀를 위하여 의로운 상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이 자신이 받은 축복사의 축복을 이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는 유산과 그들이 속한 전통과 그들에게 약속된 일부 축복을 이야기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그 축복문에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의로운 특성과 성격을 말해 주는 문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특성을 강조하고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묘사로 사용할 때 그런 것이 실제로 자녀의 자아상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쁘게 생각하신다”라는 등의 문구는 자녀가 자신이 선하며 받아들여진 사람으로 정의내리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덕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녀가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축복문에서 언급한 특별한 덕성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팔리 피 프랫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기관, 속성, 감각, 동정, 호소력 등을 지니게 됩니다.

“인간은 이러한 속성들을 원초적인 상

때로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속성은 처음에 미발달 상태에 있으며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신학의 열쇠, 제4판, 리버풀, 영국, 알버트 캐링턴, 1877년, 101페이지)

우리 자녀는 이미 덕스러운 특성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할 일은 자녀가 그런 특성을 깨닫게 해주고 그것이 자라게 하며 그런 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딸인 애니사는 보통 니스라고 불렀는데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매일 부정적인 태도로 하루를 맞이하여 그것이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니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나는 행복이 그녀의 영에 내재하는 특성이었으며 현재도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잘 잤니, 행복한 니스야”라고 나는 최대로 명랑한 음성으로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면 딸은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니스예요”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행복한 니스라고 불렀습니다. 딸은 개선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뚱한 얼굴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딸을 침대에 누면서 “행복한 니스야, 너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뭘데요?”라고 딸이 물었습니다.

“나는 아침에 네 그 아름답고 밝고 큰 미소를 맨 처음 보는 것을 좋아한다. 네 미소를 맨 처음 볼 때 하루 종일 모든 것이 더 잘된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험클어진 머리에 줄리는 눈을 한 딸 애니사가 얼굴에 이상하게 억지로 미소를 띄고 있었습니다.

나는 “웬 일이니?”라고 말을 시작하다가 어젯 밤에 한 말이 생각나서 멈추었



읍니다. 나는 “아, 그 미소!”라고 소리치고 딸을 힘껏 껴안았읍니다. “이제 오늘 하루는 좋은 날이 될거야!” 사실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 경험이 정말로 전정이 된 것은 최근에 가졌던 가정의 밤이었는데 그때 우리는 모두 자신을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한 가지 특성을 설명하라는 부탁을 받았읍니다. 애니사가 즉시 “저는 항상 행복해요”라고 대답했읍니다. 그 생각이 이제는 딸의 자아상의 일부가 되었읍니다.

우리 자녀가 따를 의로운 상을 심어 주는 것이 아마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들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지기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은 그리스도의 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엘마가 말한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비물에 지녀 보았느냐? 이 놀라운 변화를 너희가 마음으로 느껴 보았느냐?” (엘 5:14)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상을 받아들인 다음에야 자녀가 그리스도의 상을 받아들일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읽고 공부해야 하며 우리가 배운 것을 자녀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매우 잘 알아서 이런 것이 단지 말 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개념이며 이념이며 상이 되어야 합니다. *

셰리 존슨 자매는 여덟 자녀의 어머니로서 바운티플 유타 웨스트 스테이크에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읽고 공부해야 하며 우리가 배운 것을 자녀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질의 응답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질문 :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기사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 : 에프 데이빗 리, 아난테일 버지니아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주일학교 회장단 보좌이며 복음 교리반 교사.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을 좀더 완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천 명을 먹이신 후에 무리를 보내고 남아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항해하는 동안 폭풍이 불어서 그 작은 배가 파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을 더욱 무섭게 한 것은 그들이 영으로 생각한 분과 직면하게 된 것으로서 그들은 무서워서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구세주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시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 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는 의구심을 품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마 14 : 28-29)

베드로는 배를 떠나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 주위에 불어치는 바람으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주의가 흩어지자 그의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했으며 무력하게 물속으로 빠져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리쳐 예수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를 안전하게 하신 다음 부드럽게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 다음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 14 : 31-32)

이것은 정말로 감동적인 사건으로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자연의 제반 요소를 다스리는 그의 권세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는 1년 전에도 갈릴리 바다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마 8 : 23-27 참조) 만일 이때 그분의 목적이 제자들의 마음에 당신이 정말로 권능과 권세를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종된 선택된 분이라는 더 강한 확신을 심어 주는 것이었다면 그분은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마 14 : 33)

나도 그분께서 우리와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분과의 관계에 관하여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가르치고 계셨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비유로 가르치시는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마 13 : 3, 34) 아마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좀 극적으로 만든 비유로서 물 위를 걸은 이 경험을 생각함으로써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바다에서의

멋진 모험을 접하게 되는데 바다에서 주님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제자 한 사람이 물에 빠지는 것을 구하시고 또 배가 뒤집힐 수도 있었던 것을 구해 주십니다.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기적의 권능과 권세와 본질을 음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에 응답하는 자연의 힘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서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그날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에 있어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인생에서 우리 자신의 경험과 관련하여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비유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분부대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기꺼이 거룩하신 뜻에 좇아 필멸의 생을 통한 우리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폭풍이 이는 갈릴리 바다를 여행할 때 따르는 위험을 알고 있었던 배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는 길에 위험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생에서 인생의 폭풍에 직면하여 세상적인 지주가 때로는 산산히 부서지거나 가라앉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당히 주의 깊게 만든 계획을 뒤엎을 능력이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에게 손을 뻗치고 그분의 거룩한 도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도와 주실 준비가 된 우리의 구세주께서 비록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바로 옆에서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투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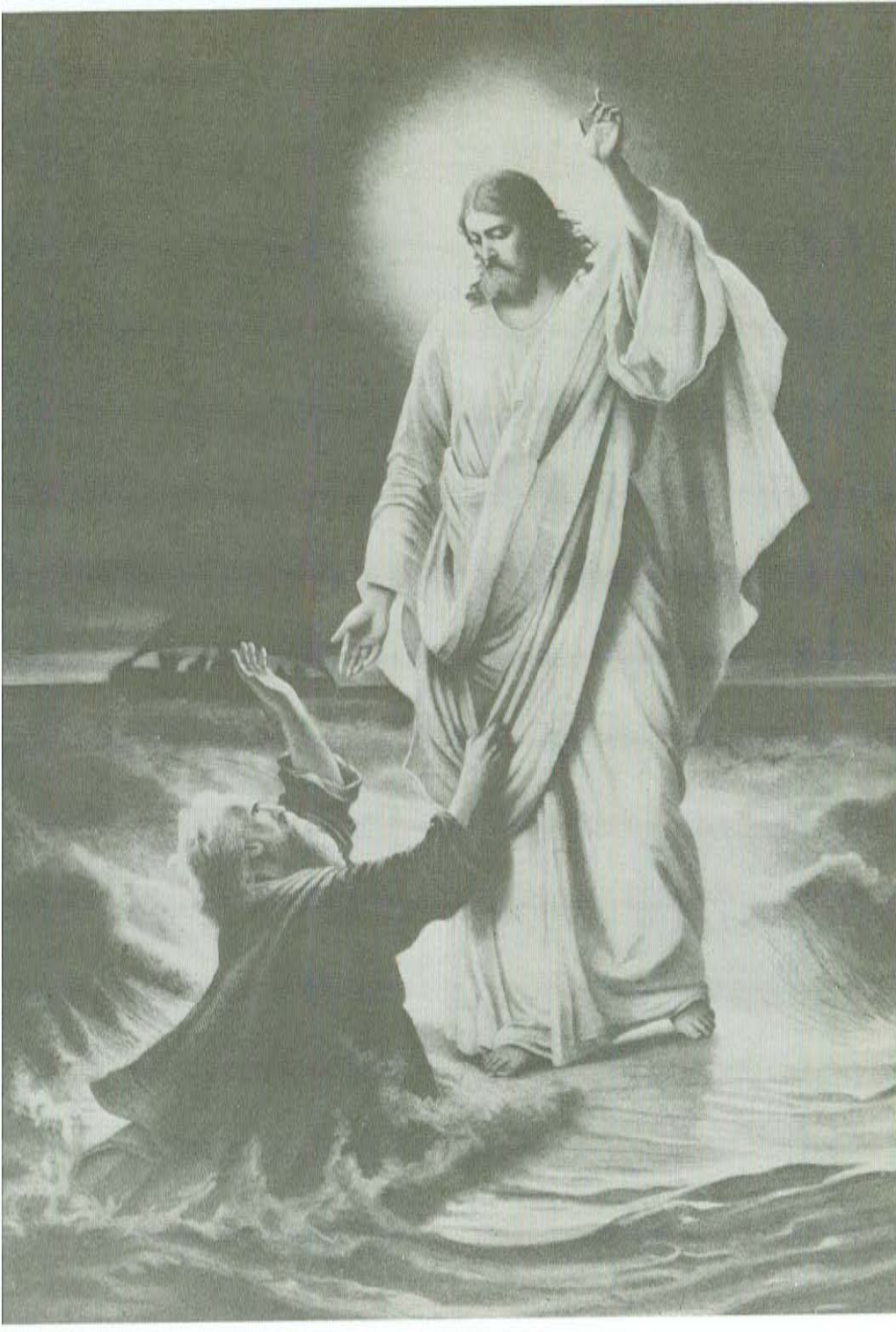
베드로가 혼자 배를 떠나 신앙으로 물위를 걷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눈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확고하게 고

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불가능한” 일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가고 싶으면 세상적인 지주에 의지하려는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장 좋은 기회가 아직 떠 있지만 폭풍에 나부끼는 배 안에 있는지, 구세주와 함께 파도 위에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경전에서는 우리가 통과해야 할 “신앙의 시련”(이디 12:6)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히려 이것은 영생을 상속받으려는 모든 사람을 위한 배움의 과정 즉 연속적인 필수 과정입니다. 베드로가 배를 떠나는 발걸음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그의 신앙의 시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매놓을 때마다 그가 잘 알고 있는 생존 수단으로부터 한 걸음씩 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모두 자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배를 떠나 “오라”는 주님의 부름에 응하도록 강요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순간 베드로의 주의가 그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으로부터 그를 둘러싼 사나운 바람과 파도로 흩어졌습니다. 혼란에 빠지는 순간 두려움이 그의 신앙을 압도했으며 베드로는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신앙을 발전시키는 동안 우리는 배를 떠나기에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지로부터 자유롭게 서서 폭풍을 지나 신앙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우리 구세주를 향하여 걸겠다고 결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에게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파도는 베드로를 둘러쌌던 파도만큼이나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빠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파멸을 향하여 무섭게 빠져 들고 있다고 느끼고 그 혼란된 절망 가운데서 배의 안정성을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우리 신앙의 시련에 맞서려는 우리의 노력은, 또한 인생의 믿을 수 없는 물 위를 걷는 우리의 발걸음은 어떻게든 다시 우리의 방향을 잡아 줍니다. 또한 우리는 이전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처럼 배를 향해서가 아니라 구세주께서 뻗으신 손길을 향하여 손을 뻗어 안전을 도모합니다. 손이 손을 잡고 우리는 바람과 물의 주인을 향하여 끌려갑니다. 더 이상 그분은 폭풍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분의 음성은 으르렁거리는 강풍에 가려 불투명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집에 있습니다. 이제 시련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

질문: 교회의 이름을 간단하게 사용하고자 할 때 "물몬"이라는 말이 적합합니까?



대답: 던 비 클레벌리, 선교사과 집행 보조, 바운티폴 유타 사우스 스테이크 칠십인 정원회 회장

교회 회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 내지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칩레발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로 성약을 맺고(교성 20:37 참조)

"마음의 뜻을 다하여"(니이 31:13) 아들을 따르기로 했으며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모사 18:8)겠다는 뜻을 표시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복음의 경륜의 시대에 있어서의 방식이 되어 왔습니다.

경전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여러 가지로 공식적인 명칭의 별명으로서 비공식적인 이름으로 불리웠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행 11:26)는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소수 교타의 사람들에 대한 경멸의 명칭으로서 멸시의 뜻으로 적용했을 것입니다.(행 28:22 참조) 그러나 이 명칭은 초기의 성도들이 기꺼이 받아들인 것 같은 명칭이었습니다.

약 한 세기 전 미대륙에서도 주님의 백성을 원수들이 "그리스도인"(앨 48:10)이라고 불렀으며 주님의 백성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모두 기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려 하였으며 기쁘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였으니, 저들이 하강하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었음이라."(앨 46:15)

우리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일성도 교회의 초기 회원들은 물몬경을 성경에 수반되는 경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물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이름은 원래 경멸에서 나온 말이었으며 말일성도들이 곧 이 명칭을 받아들이고 비교적 자유롭게 널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1838년 4월 26일 미조

리주 파웨스트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명에서 우리 시대의 그의 교회의 이름을 확고하게 정하셨습니다. “나의 교회는 마지막 날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 불리우리라.” (교성 115 : 4) 이 교회는 물몬의 교회나 요셉 스미스의 교회나 기타 살았든 죽었든 그 어느 다른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 주는 이 교회를(…은 땅 위에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를…) 매우 기쁘게 여기느니라.” (교성 1 : 30) 그리고 그 회원은 이전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에 살았던 회원이나 성도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말일성도”로 불리웠습니다.

그 이전의 경륜의 시대에 주님의 제자들이 교회 이름을 대하여 여쭈었을 때 구세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경전에 그리스도라는 나의 이름을 취하라 한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 이름으로 일컬어 지리도다.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받들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 인즉,

“너희가 무엇을 행하든지 나의 이름으로 하며 교회도 나의 이름으로 부르라.

또한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여 아버지께서 나로 인하여 교회를 축복하시게 하라.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지 아니할진대 어찌 나의 교회가 되겠느냐? 만일 교회가 모세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면 이는 모세의 교회요, 사람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면 이는 사람의 교회라. 그러므로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교회가 내 복음 위에 세워진 바 곧 나의 교회라.” (니삼

27 : 5-8)

이 가르침은 거룩하게 주신 완전한 이름으로 교회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름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대화를 할 때 교회 이름을 짧게 부르고 싶어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대화 내용 상으로 미루어 이해가 될 때는 “교회”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렇게 말 해서 분명하지 않다면 “물몬 교회” 대신에 “말일성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것입니다.

회원을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말일성도” 또는 “교회 회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대관장단에서는 1982년 10월 1일에 발표한 선교 사업에 관한 성명에서 주님의 교회의 이름의 중요한 의미를 다시 강조 하였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 꼭 이 사실을 강조하십시오. 주님께서서는 ‘나의 교회는 마지막 날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 불리우리라’(교성 115 : 4)고 말씀하시며 이 교회가 이 이름을 가져야 한다고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물몬 교회’라는 말을 너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를 전파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계시받은 이름, 즉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새롭게 강조하고 사용하는 것을 통하여 이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번영할 것입니다.”

*

결혼에 관하여 경전에 있는 대로 행하였더니

스펜서 제이 콘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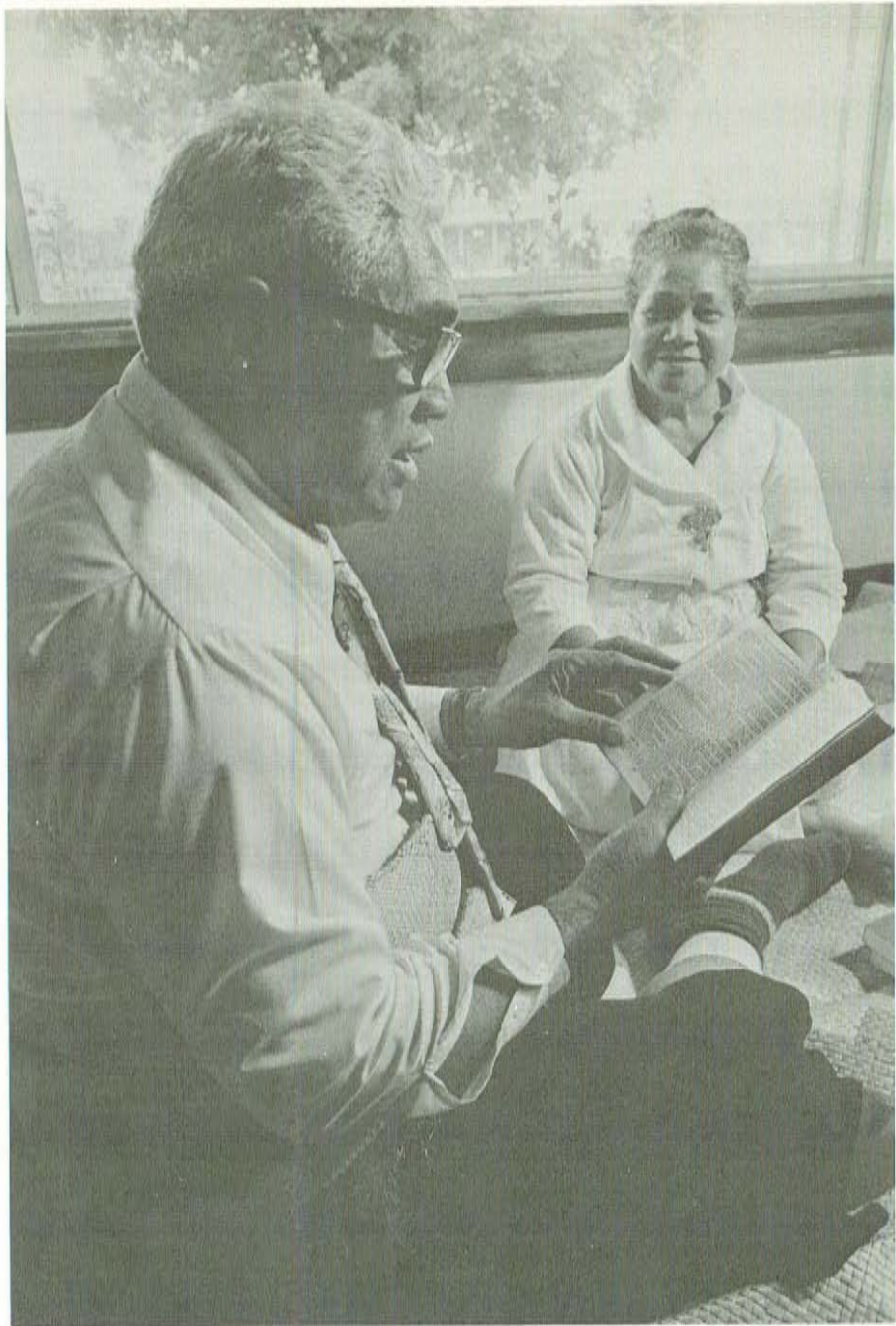
빌과 수전은 특실한 말일성도로서 결혼한 지 9년이 되었으며 다섯 자녀와 자동차와 좋은 집과 안정된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정말로 단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행복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으나 폭풍 치는 날이 햇빛 비치는 날보다 더 많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감독님과 집권 약속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함께 많은 문제점에 관하여 토론한 다음 감독님은 빌과 수전에게 우리는 모두 어떤 “각본”에 따라서 즉 우리가 부모나 기타 아는 사람으로부터 배운 행동 방식에 따라서 생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방식과 습관이 우리 결혼 생활에서 오해의 뿌리가 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 관계가 어떤 방식에 빠져 있을지라도 경전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행동을 이끌어가는 데 필요로 하는 생활 대본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빌,

수전, 두 분은 얼마나 자주 함께 경전을 읽습니까?”

“몇 번 노력해 보았지만 일이나 다른 의무, 텔레비전 등으로 인하여 경전 공부를 계획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라고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윌슨 감독은 빌과 수전에게 그들의 상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경전을 읽도록 간곡히 권유했습니다. 빌이 가법계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감독님, 저는 선교사로 봉사할 때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구절은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감독은 빌의 대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경전에 대답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전이 우리를 유일하게 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니파이의 권고를 따른 적이 있습니까?(니일 19:23 참조) 다음 주에 매일 15분 내지 20분 동안



아 내와 가족을 위한
봉사를 하면서
자신을 기쁘게 바치는 남편...
가족의 행복이야말로
자신의 생활에서
키다란 기쁨의 근원입니다.

체계적으로 경전을 공부할 시간을 배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주제에 관하여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신이 읽은 것에 관하여 철저히 토론하고 무엇보다도 경전의 가르침을 형제님의 가족 관계에 적용하십시오. 또한 형제님이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일지에 적어서 나중에 언제든 참조할 수 있게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빌과 수전은 감독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경전의 훈계가 예를 들어, 팔복 같은 것은 이웃과 직장 동료와 친구들에 대한 행동과 태도를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득 그들은 우리 이웃을 대하는 방식에 관한 경전상의 훈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본질상 결혼한 부부가 서

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영감에 찬 훈계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1. 네 몸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교성 112 : 11 참조) 빌은 언제나 열렬한 스포츠 팬이었으며 또 스포츠맨이었습니다. 낚시, 골프, 보울링, 사냥, 구기 시합, 텔레비전에서 운동 시합을 구경하는 것이 그의 생활에서 늘 정기적인 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수전도 가능한 한 남편의 취미를 많이 같이 즐겼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태어나기 시작하자 남편과 함께 시간을 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수전이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한 남편의 도움이 결여되어 있다고 느끼게 됨에 따라 이런 사정이 계속해서 짜증이 나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빌은 교리와 성약을 읽던 중 어떤 성구에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몸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라. 또 나의 이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라.” (교성 112 : 11) 그는 이 성구를 좀더 잘 알고 있는 다른 성구와 대조해 보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 10 : 39) 그는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 (모사 2 : 17)이라는 베나민왕의 말씀을 음미하는 가운데 과거의 자기 행동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빌은 친구들과의 수많은 활동에서 점차 손을 떼고 가족 중심의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함에 따라 후회로 인하여 조금씩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자주 자녀를 데리고 시골길을 산책하거나 차에 태워 드라이브를 시켜 주어 아내

가 혼자서 쇼핑을 하거나 집에서 자녀에게 시달리지 않고 혼자서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매주 수전과 단 둘이 외출하고 자녀가 잠든 후 자주 함께 산책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2. 서로 용납하라. (골 3:13) 1년 365일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날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때때로 피곤하고 짜증스럽기도 하며 독감에 걸리거나 등이 쭈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이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빌은 아내가 임신 기간에 기분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하여 놀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건 다 당신 생각 때문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부인의 마음을 조금도 더 낮게 만들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수전은 자기 방에 가서 울고는 이틀씩이나 남편과 말을 하지 않곤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복음에 관하여 깨달은 것이 점점 쌓여감에 따라 그런 것이 많이 변했습니다. 수전은 다섯번째 아기를 배고 있었으며 기분이 좋지 않고 그녀의 상태도 인하여 건디기 어려울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은 전도서 7장 8절에서 지침을 발견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지어는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을 때라도 아내에 대한 사랑을 보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골 3:12-15)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격노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골 3:2, 19, 21)

빌과 수전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이제 그들은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 (잠 17:17)함을 깨닫고 서로에 대하여 그런 사랑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주님은 정말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느 날 빌과 수전은 물문경을 공부하는 동안에 전에 읽을 때는 몰랐던 것을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방탕한 엘마 이세와 모사이야왕의 반항적인 아들에 관한 기사와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내용을 읽고 있었습니다.

“보라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주의 종, 엘마의 간구를 들으셨으니 곧 이는 너의 부친이라, 저가 네게 진리를 알게 하려 두터운 신앙으로 간구한지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내게 알릴 뜻으로 이곳에 왔으며, 주님의 종의 간구가 저의 신앙에 따라 성취되리로다.” (모사 27:14)

빌과 수전은 이렇게 천사가 방문하고

나서 생긴 놀라운 여러 가지 일에 관하여 토론한 다음 과거에 그들의 생활에 축복을 가져다 준 사람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빌이 선교 사업을 할 때 맨 처음 선임 동반자는 그가 성공적인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수전은 옛날에 그녀가 신전에서 결혼하길 바라는 부모님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도와 준 월계반고문의 영향력을 회상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관하여 토론하는 가운데 그들이 그것을 위하여 은밀히 기도한 그들 관계의 몇 가지 변화에 대하여 솔직하고 민감하게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수전은 남편이 자신의 성미를 좀더 다스리고, 자신과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무감각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배우도록 은밀히 기도했었습니다. 빌은 아내가 지배하려는 태도와 딱딱한 태도가 좀 누그러지고 좀더 애정과 사랑과 이해심이 많게 되도록 기도했었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 대화의 문이 열렸으므로 그들 관계에 있어서 오래 계속된 여러 가지 차이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들이 결혼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한 가지 성구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엘마서를 읽는 가운데 그들의 모든 염려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말씀드리라는 이 위대한 예언자의 권고에 다시 감명을 받았습니다. (엘마서 34 : 17-27 ; 37 : 36-37 참조)

4. 아내, 남편, 주님. 바울의 서한의 한 구절이 여러해 동안 수전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엡 5 : 22) 이제 수전은 그 문제를 마음놓고 이야기할 만큼 빌에 대하여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전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성구를 어떻게 해석하세

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빌은 이것에 대하여 잠시 생각하고는 마침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우리는 선교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질문에 봉착하면 그것을 올바르게 보기 위하여 그 성구의 앞뒤의 여러 구절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많았소. 다른 구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봅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됄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됄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실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 같이 할찌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엡 5 : 1-2, 21-25, 28-29, 33)

빌과 수전은 이 장에 관하여 토론한 다음 여기에 관련된 기본 원리는 구세주께

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즉 우리는 기꺼이 서로 봉사하고 심지어는 서로를 위하여 죽을 준비까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며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와 같이”(엡 5:23)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이야기했소. 내가 수없이 그리스도같은 남편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당신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겠소. 나는 당신과 아이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생각지 않고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기쁨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았소. 나는 당신에게 명령하고 요구하기보다는 내 생활에 구세주의 가르침을 집어 넣고 당신과 아이들을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노력하겠소.”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공처가같이 생각될 때가 여러 번 있었소.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도록 강요당하는 것같이 느꼈던 것 같소. 그러나 우리가 경전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한 이후로 아내와 가족을 위한 봉사를 하면서 기쁘게 자신을 바치는 남편 가운데 공처가로 간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소. 그것은 그 남편이 분명히 가족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으며 가족의 행복이야말로 자신의 생활에서 커다란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이오.”

5. **해의 왕국의 결혼을 이룸.** 경전에서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여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모세 7:18)는 사회에 대하여 가끔 조금씩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의 마음에 깃들어 온 땅에 불화가 일지 아니”합니다. (니사 1:15)

빌과 수전은 이전에는 교회가 어떻게 든 그런 사회를 건설하도록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전을 탐독하게 됨에 따라 예수가 세운 것과 같은 도시에서 편안하게 살 가족을 지금 건설하는 일을 최소한 출선해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문의 시대 초기에 주님께서서는 요셉 스미스에게 이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누구든지 겸손하며 사랑이 가득하며 신앙, 소망, 자비의 덕을 지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면 어떠한 일이나 모두 삼가 조심히 행하는 자 아니면 이 사업을 도울 수 없느니라.”(교성 12:8)고 말씀 하셨습니다. 존슨 부부는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라는 니파이의 명에 따라 위의 교리와 성약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겸손하며 사랑이 가득하며 신앙, 소망, 자비의 덕을 지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면 어떠한 일이나 모두 삼가 조심히 행하는 자 아니면 행복하고 성취감이 넘친 결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복음에 대하여 깨닫는 것이 점점 더 쌓여가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의 식량 비축 프로그램이 서로 다룰 수 있듯이 빌과 수전이 성경 지식을 쌓는 창고는 다른 부부와는 좀 다른 훈계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식량 비축과 마찬가지로 성구를 쌓는 창고에 따르는 축복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요한1서 4:18)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교성 38:30)는 것입니다. *

스펜서 제이 콘디-브리감 영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이며 다섯 자녀의 아버지인 그는 브리감 영 대학 제10스태이크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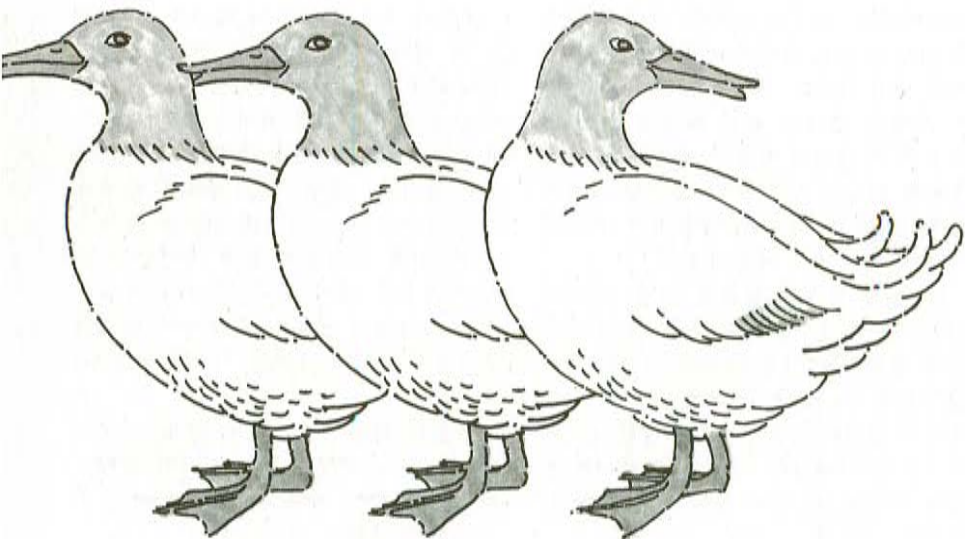
똑같은 오리는 없다

앤 앤 매드슨

내가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 가운데 하나는 아주 축복받은 중재자이셨던 아버지에 관한 기억이며 여러 해 전에 남태평양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시면서 배운 사모아 속담을 이용함으로써 우리 가족의 분쟁을 해결하시던 일입니다. 그는 “이 에시에서 파토”라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오리는 서로 다르다”는 뜻으로서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독특하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대하라.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관련되어 자주 반복된 이 경험이 사람의 차이에 관하여 내가 이해하게 된 시작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대관장단 제2보좌인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님은 최근에 우리 아버지께서 가르치셨던 원리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비관으로 가득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남의 결점을 들춰 내는 일은 신문 기고인이나 텔레비전 비평가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점을 들춰 내



기란 아주 쉬운 일이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진리의 적은 우리를 분열시키며 비판의 태도를 길러 줍니다. 만일 우리가 이를 허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목표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서는 안됩니다.” (성도의 빛 1982년 7월호에 게재)

우리는 세상에서 매일매일 비판과 적개심에 직면하게 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살면서 이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또한 자신의 생활에서 매일의 갈등과 실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그 해답의 일부를 우리 신앙개조의 두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개조 제11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사람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어디서나 어느 모양으로나 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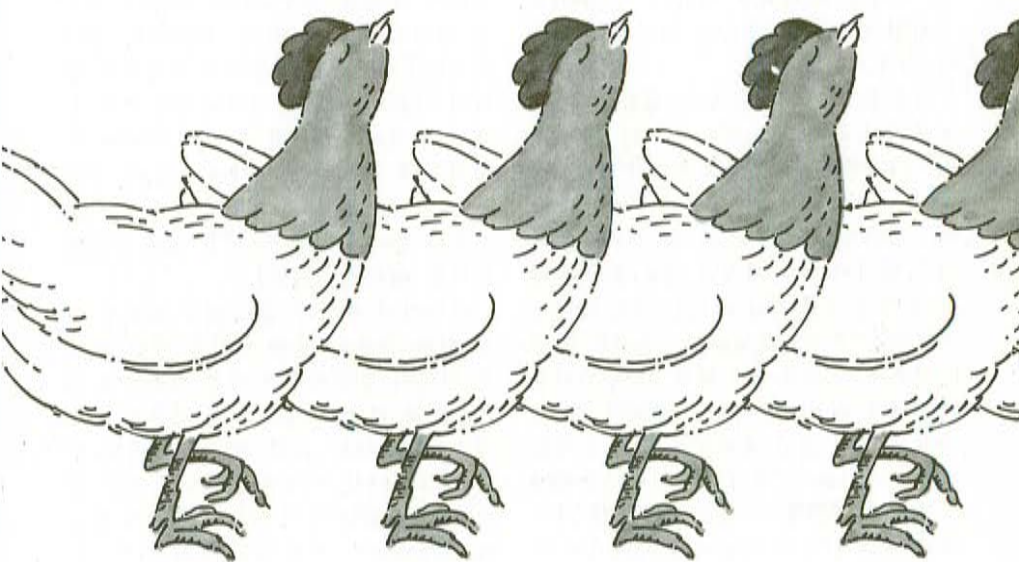
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이 허용됨을 주장한다.”

“사람마다…똑같은 특권이 허용됨”이라는 표현은 물론 종교적인 관용이라는 개념을 표현합니다. 또한 나는 이것이 우리 부친께서 내가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것으로써 모든 형태의 관용을 포함하도록 확장될 수 있는 복음 원리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신앙개조 제13조에도 전자와 관련되는 문구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만민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나에게는 “만민에게의 선행”은 “사람마다…똑같은 특권이 허용됨”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것으로써 우리가 사랑 또는 구세주와 같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종류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관용이 사랑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믿으며 관용을 경유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지니게 할 수 있는 여하한 빠른 방법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용의 반대말은 물론 편협 또는 독선



으로서 이것은 핑클리 부대관장님께서 설명하신 결점찾기와 비판의 다른 표현입니다. 왜 우리는 가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편협합니까?

나는 그것이 나의 부친께서 나에게 지적하신 그런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는 차이를 표준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



관용이 그리스도같은 사랑의 시작이라

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생각을 하며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며 우리와 그런 것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연령이나 육체적인 결함 등과 같은 차이는 전혀 문제가 안되며 결코 우리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화적인 차이도 이런 범주에 속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범세계적인 교회이며 수많은 다른 문화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립된 습관이나 풍습에 자신을 고립시킬 여유가 없습니다.

관용은 흔히 사랑으로 발전됩니다. 전 세계에서 봉사하고 있는 약 3만 명의 우리 선교사들의 대부분과 수많은 귀환 선교사들이 이것에 대하여 간증할 것입니다. 우리를 선교사로 온 세상에 보내서 다른 언어와 다른 의상과 다른 풍습과 다른 음식에 직접 접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영감받은 프로그램입니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도착하지만 여러 가지 차이를 초월하게 하는, 우리가 전달해야 할 회복된 진리의 값진 메시지를 갖고 도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즉 그들이 영원한 가족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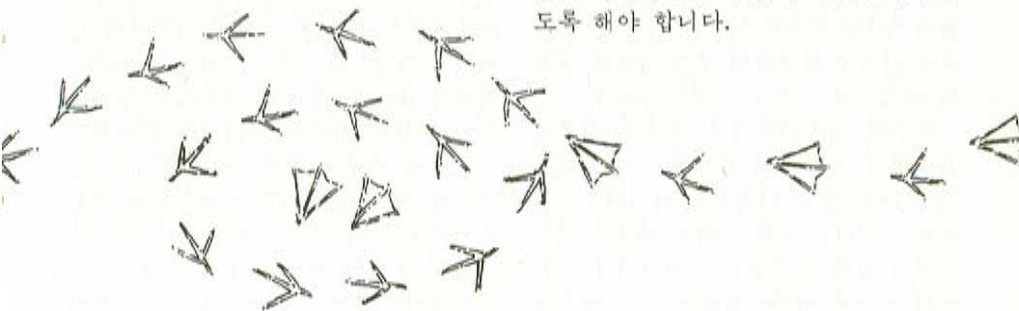
리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가르칠 때 서로 다른 차이는 형제애에 굴복하고 맙니다.

복음에 대한 헌신이 우리의 위대한 공통적인 특성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누구의 자녀인지 압니다.

이런 지식은 정말로 문제가 되는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도 우리를 도와 줍니다. 그런 차이는 표준, 원리, 진리,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확인해 주는 종교적인 경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지만 이것이 관용과 사랑에 장애가 되면 안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위하여 그들의 관념을 채택하거나 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를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의 전통이나 죄로부터 분리하여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보기를 배워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를 갖는 것과 의롭고 참된 원리를 아는 것으로 인하여 말일성도가 다른 사람보다 자동적으로 더 나아지거나 더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단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우리가 진리의 손잡이나 발판을 발견하는 순간 거기에 표시를 해서 뒤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밀어 그들이 발견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종교가 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독선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움으로써, 인간 정신을 퇴보시키고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탄의 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멸망당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들을 우리의 어깨 위에 올려 그들의 죄를 우리 뒤로 가려 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게 하려면 우리가 서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요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의 발췌문, 235페이지)

복음은 우리에게 형제 자매의 약점과 피로써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생활로 모범을 보여 진리를 배워 그대로 생활함으로써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일깨워 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 위원인 헨리 비 아이링 형제님은 우리는 등산가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야 하지만 우리의 발판을 삼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던지고 올라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1842년 6월 9일에 상호 보조회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들과 교제했기 때문에 독선적인 유대 사회의 지탄을 받았읍니다. 그는 죄인들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 조직의 목적이지만, 부패한 자들을 악 가운데 성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메려다가 친절하게 성별시키고 우리가 감화를 주어 그들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손을 잡아 죄사유함을 받도록 인도하며 부드러움으로 저들을 보살피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34페이지. 밑줄 친 부분은 첨가된 것임—“자비의 원리”—)

나는 최근 회개하지 않은 채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교회 재판정을 화를 내며 걸어나간 어떤 파문당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재판에 참여했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글쎄요, 좋아요. 그는 평안을 회복할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될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 잘 갔어.” 그러나 거기에 있었던 고등 평의원 한 사람은 그 다음 수년 동안 매주 3일 밤씩 그 사람을 방문하였으며 마침내 그는 누구러지게 되었고 회개하여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었으며 교회에 복귀했습니다.

최근에 파문당했거나 옛날에 파문된 사람에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또는 젊은 미혼모에 대하여서는? 또는 마약이나 알콜 문제로 싸우고 있는 선교사 연령의 말일성도 소년이나 또는 어떤 소년에 대하여서라도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왜 이사가야 1장 18절부터 19절에 있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찌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것이 복음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이지만 불행히도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손길을 뻗기기를 꺼리는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종교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우리는 교리와 성약 108편 7절에서 라이만 셔만이 받은 권고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네 모든 대화로, 네 모든 기도로, 네 모든 훈계로 네 모든 행위로, 네 형제를 격려해 주라.”

이 구절에서 모든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예외를 남겨 둘 여지를 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우리의 적이라고 자처하는, 예를 들어 말일성도에

반대하는 자료를 출판하고 유포시키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전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마 5 : 44 참조) 그 대신에 우리는 진리의 대업의 투사가 부족하고 긍정적 인 하나님의 사업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조직적인 반대에 직면하여 말일성도 적 대자의 적이 되어 그들과 싸우는데 힘을 소비하고 눈에는 눈으로의 식으로 갚습니까? 우리의 의무는 열국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우리의 가르침을 거부하더라도 우리가 뻗은 사랑의 손길은 결코 움추리면 안됩니다. 우리의 원수로 자처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궁극적인 반응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심을 배우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보복에 맞추어서 진리를 알 특권을 허용하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모르셨던 구세주의 사랑으로 향하여 눈에 보이게 진진할 것입니다. 그분의 모범은 언제나 관용으로부터 사랑과 완전한 사랑으로 가는 부드러운 길을 가르치기 위하여 서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적에 대하여 노하게 할 수도 있었던 온갖 조롱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 12 : 32) 그리하여 그분은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는 널리 퍼진 우리 아버지의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이보다 덜 할 수 있겠습니까? *

앤 엔 매드슨 자매는 3자녀의 어머니이며 브리검 영 대학교의 교회 교과 과정 위원회에서 작가로 일하고 있다.



생명선

엘리자베스 스윌리

진은 미국의 남쪽 조지아에 있는 작은 마을의 17세의 한 지친 소녀가 드린 기도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배운 그 밤을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내 동생 진은 그때부터 약 4년 전에 미시시피주의 낮체즈에서 교회에 입교했습니다. 나도 거의 비슷한 때에 교회에 들어왔으나 집을 떠나서 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진은 고등학교 시절에 늘 소속한 작은 와드에서 굉장히 활동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진을 모든 모임과 모든 세미나리와 모든 활동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의 간증이 강하게 성장했으며 그녀의 매우 명량한 성격으로 인하여 재슨 미시시피 스테이크에서 모든 젊은이의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기간에 어떤 소녀도 진만큼 행복하지는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바쁘고 생산적인 생활을 배우고 자기 연명의 회원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이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었을 때 시련의 불을 통한 첫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의붓 아버지가 이혼했으며 어머니는 점점 더 교회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진이 다른 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성찬식에 갔는지 안 갔는지 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진은 친구들의 도움과 감독님 가족의 지원과 협조로 계속해서 투쟁하

었습니다. 여전히 간증히 더 강해졌으며 모든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때가 되었을 때 진은 자신의 시련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결혼해서 먼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은 농촌 지역에 사는 아버지와 함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의 목사로서 외딴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늘 우리 교회를 싫어했으며 그 못마땅한 마음은 우리 세 딸이 모두 침례받았을 때는 증오심으로 변했습니다. 진은 아버지의 자녀로서 특별한 딸이었으므로 딸이 자신의 종교와 다를 뿐만 아니라 말일성도로서 그것도 열렬한 말일성도가 되는 것을 보고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딸이 자기 집으로 이사오는 것을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겠지. 이제는 딸에게 그녀가 진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음을 일러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나는 30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지만 여름이 되면 가능한 한 자주 와서 진을 칼럼비아주에 있는 우리 집으로 데려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름은 곧 끝이 나고 진은 다시 대학교에 통학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진은 학교에 갈 때 타고 갈 차는 있었으나 주말에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는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부가 4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가령 그녀가 교회에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다니는 작은 대학교에는 말일성도 학생 신학 연구원이 없었으며 그녀가 교회 회원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진이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날이 가고 주가 가고 달이 지났습니다. 진은 경전을 읽고 개인 일지를 적고 몇 시간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열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감에 따라 복음에 대한 간증도 자랐습니다. 진은 자신이 교회 모임과 기타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자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때로는 모임이 빨리 진행되어서

얼른 끝났으면 하고 바랐던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 기간에 아버지는 그녀의 간증을 깨뜨리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버지는 온갖 성구를 다 인용했으나 진은 세미나리에서 경전을 이미 잘 배워 둔 터였습니다. 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성구로 스스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아버지는 교회와 교회의 믿음에 대하여 딸이 방어할 수 없거나 오직 논쟁을 멈추기 위하여 방어하지 않는 그런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 진의 간증이 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매일 방어해야 하는 것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진은 자신이 사랑하고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이 모두 식사 시간이나 계모와의 토론이나 아버지의 기도 소리에서 울리는 음성으로 비난받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 밤에는 몇 시간씩 무릎을 꿇는

"우리는 자매님의 가정 복음 교사입니다."
"이제 자매님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것만이 그녀를 완전한 절망으로부터 지켜 주었습니다. 진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신을 버리는 것에 대하여 화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느라고 몹시 투쟁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사랑하는 성구까지도 옛날의 친구와 교사와 감독님에 대한 무서운 그리움을 자아내게 했기 때문에 읽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진은 밤에 침대에 누워서 이 세상에서 자신만이 유일한 말일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면서 뺨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진은 강해지려고 노력했으나 아직 어리고 혼자였으며 다른 회원들과 오랫동안 접촉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1월의 어느 날 밤 진은 특히 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제모가 그녀를 비난하고는 큰 소리로 기도하여 진은 거의 고통을 지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겪고 있는 시련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언니들은 동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으나 모두 도움을 주기에는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마침내 진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이전에 수없이 했던 것처럼 온 마음을 다 쏟아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가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시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더 이상 질 수 없으므로 어떤 도움을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진이 미시시피주의 낮츠제를 떠났을 때 그녀의 회원 기록 카드는 가장 가까운 지부로 발송되었습니다. 그 기록이 도착하자 그녀에게 가정 복음 교사가 지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진을 만난 적이 없었고 그녀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살고 모임에 참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 복음 교사가 그녀를 방문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 자매는 아마 만 8세에 교회 회원이 되었지만 한 번도 활동적이 된 적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부의 어떤 사람은 조지아주 이집트에 있는 스윌리 씨가 다른 교회 목사이며 이 진은 아마 목사 부인일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들은 먼 길을 차를 타고 가서 면전에서 문이 쾅하고 닫힐 것을 생각하고는 가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지부에서 모든 회원들은 할 일이 많았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는 그 지부가 있는 마을의 반대편으로 약 2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으며 진이 있는 곳까지 농촌 길로 편도만 60킬로미터가 되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났으며 매달 그 가정 복음 교사의 보고서는 스윌리 자매에 관한 것만 빼고는 환벽했습니다. 이 사람은 훌륭하고 양심적인 사람이었으므로 이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그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기 위하여 최소한 한 번은 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이 자매를 만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는 도저히 마음이 편안해질 수 없는 밤이 왔습니다. 그는 만 16세 소년인 동반자를 불렀으며 그들은 그 먼 길을 차를 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들은 시골로 깊이 들어갈수록 불편해지기 시작했으며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라고 권고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진 스윌리가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도와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의 기도가 끝나고 그의 눈물이 말랐을 때 아버지가 그의 칩실문을 두드렸습니다. “애, 밖에 두 남자가 와 있는데 너를 찾고 있다. 그들은 말일성도이며 그들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네가 문 앞에서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아.”

진은 집안을 가로질러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현관에 섰으며 두 남자가 운데 연장자가 손을 뻗으며 “우리는 자매님의 가정 복음 교사입니다.”라고 말할 때 다시 눈물이 솟았습니다. 진이 그의 품에 뛰어들어 그 동안 느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모두 울면서 이야기했으므로 가정 복음 교육 교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누군가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진이 이 훌륭한 방문자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것을 저는 압니다. 그들은 좀더 일찍 못 온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지부장에게 그녀의 사정을 알려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진과 함께 기도했으며 건지기 너무 어려울 때에는 그들에게 말하라고 했으며 진이 평생 동안 들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훌륭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자매님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진은 아직도 교회에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필요 사함을 아시며 기도에 응답하신다

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녀의 영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가정 복음 교사들이 아버지와 먼저 이야기하는 한 계속해서 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진이 가정 복음 교사들에게 이 사정을 설명하자 그들은 아버지와 이야기하겠으며 기쁘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의 담당 가정 복음 교사는 그녀를 방문하지 않을 구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우선 매우 불편했으며 차타는 시간만 해도 1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진이 그들을 만나고 싶다고 관심을 표명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이 그들을 환영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다른 교회 책임으로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령의 권고에 따랐습니다.

그 가정 복음 교사들은 그들이 진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었는지 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동생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리고 있는지 절대로 모를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와와의 대화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그들이 어떻게 알겠을까? 또 교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가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부정한 그 어머니가 자기 딸이 어떤 경위로 더 이상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 어머니가 눈물을 쏟으며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살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라고 말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 두 남자가 성신의 권고를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더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도 그 똑같은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

비판하지 말라

캐롤 린 피어슨

나는 몇 달 전에 약 300명 이상이 모인 상호부조회 대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청녀 회원들도 초청을 받았으며 상당수의 십대 소녀가 청중에 섞여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왼쪽 끝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쪽을 보니 세 명의 예쁜 아가씨들이 낮은 음성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약간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는 청중이 나에게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연사가 노력하고 있는 것에 역행하는 일을 하는 것은 별로 잘 참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나는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의를 집중하고 연사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자기 지갑에서 손을 빼고 서로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빗어 주고 싶은 것을 참고 서로 발로 열사람의 구두를 차거나 서로 쿵쿵 찌르고 킁킁거리는 것을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청중은 가명 젊은 청중일지라도 연사에게 완전히 예의를 갖추고

산만한 분위기를 야기시키지 않고 잘 들을 의무가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분위기를 흐뜨릴 때 내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방식은 말을 멈추고 그 사람이 나를 보고는 수줍게 다시 주의를 집중할 때까지 그 사람을 보고 미소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집중하면 다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 방법은 대개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앞줄의 세 소녀가 계속해서 속삭이는 동안 가끔 그들을 쳐다보았으나 그들은 내가 쳐다보는 것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도대체 저 소녀들의 어머니는 어디에 있지?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면 왜 이곳에 왔지? 왜 지도자들은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고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활동에 참석하도록 강요하고 있지? 이 장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내 말씀에 매혹되어 있는데 저들은 어떻게 감히 내가 이 훌륭한하고 감동적인 말씀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청지기”라는 시

를 소리내어 읽고 있었는데 그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그들을 바라보았으며 그들은 나를 쳐다보고는 세 소녀가 서로 몸을 기댄 채 다시 낮은 음성으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시를 다 읽고 나는 책을 덮고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미소를 보이고는 다시 킁킁거렸습니다. 나는 그들이 킁킁거리는 것을 멈추고 아무 소리없이 나를 볼 때까지 그들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속삭이는 소리는 더 낮아졌으나 계속해서 그들이 서로 몸을 기대고 속삭이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포기하고 나의 이야기를 끝냈으며 그들을 오게 한 사람이 누구였든지 그들을 초청하지 않았으면, 또한 요즈음 젊은이들이 좀더 예의를 지킬 줄 알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활동실에서 다과를 드는 동안 한 여성이 나에게 와서 악수를 청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어슨 자매님, 이 소녀들로 인하여 너무 마음상하지 않았기 바랍니다. 그들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우리 나라에 온 지 1주일밖에 안됩니다. 그들은 레바논으로부터 왔으며 8시간 차로 아슬아슬하게 그 무서운 레바논 양민 학살 사건(1982년 9월 16~17일)을 모면했습니다. 아마 그들도 학살당했을때 용하게 그 나라를 빠져 나와서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와드가 그들을 입양한 셈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오늘 밤 여기에 참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자매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내려고 서로 도우려고 애쓰면서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의 양심에 큰 진동이 일어났고 선입관이 산산히 부서졌으며 판단했던 것을 깨닫고 진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소녀들을 불러서 어깨를 흔들어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이 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말해 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그들에게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명을 받은 데는 많은 이유가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확신할 건데 우리가 정말로 참된 실상을 알 때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사람을 보고 가장 외부의 껍데기, 너무나 단속화되어 흔히 사람의 눈을 속이는 껍데기를 봅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웁니다. 새로운 한 가지 정보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나는 나의 선입관이 부서지고 추가된 지식으로 인하여 비판의 여지가 완전히 없어진 일을 많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학 시절에 한 명의 동창생을 늘기이하게 여겼었습니다. 그를 편의상으로 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 저 에는 저렇게 자만심이 많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 학생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누구와 대화하든지 언제나 최근에 자신이 달성한 것에 대하여 또한 틀림없이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줄 지금 그가 관여하고 있는 어떤 큰 사업에 관해서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과소 평가받고 있다고 느꼈으며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학교에서 농담 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는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자랑만 하는 아주 못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나는 친구 한 사람이 그의 가족을 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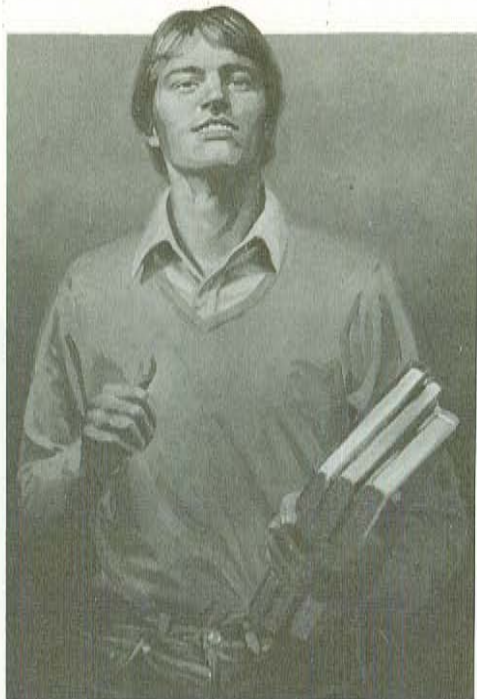
“로이의 아버지는 알콜 중독자야. 그

것을 알고 있었니?”

“아니”

“그렇단다. 아버지가 그들의 생활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어. 아버지는 미친 사람이야. 한번은 로이가 약 만 5세 가량 되었을 때 부엌으로 갔다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려 하는 것을 보았어. 그것





물어 본 결과 다른 여자들도 그런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 상황을 조사해서 그 추잡한 전화를 하는 사람이 동네 윗쪽에 사는 십대 소년이라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전화했을 때 나는 그 소년의 이름을 부르며 이것이 그가 걸 마지막 전화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때 그 소년에 대한 나의 감정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마음에서의 그 소년은 모기처럼 생활하는 귀찮은 존재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써 존재할 권리가 없지만 어떻게든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자신과 토론한 다음 그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려 갔습니다. 그 소년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은 분명했으며 그가 하고 있는 일을 부모가 알지 못하면 그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소년의 어머니에게 그 아들의 전화에 대하여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놀랐으나 나의 말을 잘 받아들였고 내가 찾아 간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재에 대하여 걱정해 왔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굉장한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는 단 1분의 자유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주말에 그가 해야 할 잔일의 목록은 끝이 없을 정도이며 그 일들이 잘 되는 적이 한번도 없어요.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재, 너는 울타리를 잘 짚아 다듬지 못했어.’ 또는 ‘잡초를 다 뽑지 않았어.’ 그의 책임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는 그의 아버지가 똑같은 편지를 4번이나 타이프로 치게 했으며 그때마다 다른 잘못된 것을 찾아 내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와서 재이 없으면 ‘재이 어디 있지? 숙제

은 무서운 광경이었는데 로이가 거기서 그것을 다 보았어.”

이 사실은 즉각적으로 나의 양심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의 모든 선입관과 판단이 다 흩어졌으며 나는 정문을 지나 내부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나는 못된 어른의 외형을 통과하여 품에 안고 위로해 주고 싶은 상처입은 어린 소년을 보았습니다. 나는 두 번 다시 로이를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비밀을, 여러 가지 비밀 가운데 한 가지를 알았으며 또한 이해하였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추잡한 전화를 굉장하 많이 받고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전화를 거는 사람이 곧 그런 것에 실증을 내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웃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행동의
뒤에 숨은 이유를 알면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는 데
항상 도움이 됩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기를 때리듯 그를 때리는 대신에 그를 돕고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그도 살 자격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의 뒤에 숨은 이유를 알면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는 데 항상 도움이 됩니다. 이상한 학교 선생님이 신혼 여행을 가려고 예식장을 떠나던 중 자동차 사고로 아내를 잃었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을 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도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그런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를 판단하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당신의 비밀을 안다면 당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자신에게 말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로 그들의 비밀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정말 인다면 다르게 느껴지리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모임에서 말씀을 할 때 아무도 이야기 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도 자신의 자만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정신을 집중할 것을 요구하면 안됩니다. 그 누구도 추잡한 것을 요구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길 때 표면을 깨물고 그 저변에 깔린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 때 그들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

하고 있나?’라고 말합니다. 재이 옆집에 가서 놓고 있으면 찾아가서 집으로 오라고 부릅니다. 때때로 재이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 여기 계세요?’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가 실제로는 ‘제가 뭔가 일을 해야 하나?’라고 묻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가 집에 없으면 나는 약간 안도의 숨을 내쉬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재은 신경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압력이 그 추잡한 전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시 양심이 떨렸습니다. 다시 나의 처음 선입관이 깨지고 문제의 내부들 들여다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재이의 비밀을, 최소한 그가 그 매우 슬픈 일들을 하게 만든 그의 내부의 아픔을 조금은 알게

스티브는 모든 면에서 완전한 아주 예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유아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늘 놀고 장난치는 일로 바빴습니다. 어느 날 그가 원인 불명의 질병으로 몹시 아프게 될 때까지는 그의 생에서 모든 것이 순탄했습니다.

처음에는 심각하게 생각되지 않았으나 스티브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우리는 그의 뇌에 포도알만큼 큰 종양이 생겨서 즉시 수술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거 중이었으며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여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어머니에게 필경 스티브는 수술 도중에 죽을 것 같다고 말했으나 어쩔 수 없기로 했습니다. 그 수술은 12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스티브는 의식 불명이었으며 그날 밤을 견디어 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가장 좋은 결과가 일어나리라는 느낌을 갖고 장로들에게 스티브의 병자 축복을 부탁했습니다. 스티브에게는 그날 밤이 정말 힘든 밤이었으나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스티브를 보러 갔을 때 그는 수술 후 처음으로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랜 회복 기간의 시작이었습니다. 스티브는 걷고 말하는 것을 비롯하여 아기처럼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스티브는 그렇게 어린때도 그가 갖고 있는 강한 의지력으로 생활에서 매일매일의 일을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배우는 것이 느렸으므로 자기 연령의 다른 아이들을 따라가기 위하여 특수반에 가야 했지만 매우 열심히 노력했으므로 오래지 않아 다른 아이들과 같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스티브의 승리



스티브의 새 생명 이외에도 우리는 모두 새 아버지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다시 결혼하셨던 것입니다.

스티브에게 모든 것이 잘되고 있을 때 그의 뇌에 모이고 있는 액체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 수술이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스티브가 지금 막 마비 증세를 일으켜서 살지 못할 것 같으니 즉시 병원으로 오라는 전화가 왔을 때는 우리가 모두 병원으로 스티브를 만나러 갈 준비를 끝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새 아버지와 함께 새 가족으로서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그녀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가까와져서 스티브를 위하여 함께 일했습니다. 그 마비 증세는 심각했으나 우리 생활에는 희망과 복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하나님 아



버지게 의지했으며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스티브는 마비 증세로부터 회복했으나 좌반신이 마비되었으며 말을 하거나 걷지 못했고 혼자서 먹지도 못했습니다. 이 시기는 스티브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는 쉽게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브는 스스로 여러 가지 목표를 정했으며 그 중 하나는 선교 사업을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달성 불가능한 목표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티브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달성할 것입니다.

그 마비 증세가 있던 이후의 날들은 그에게 어려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했으며 매일 물리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항상 명랑했고 결코 불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열심히 노력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오래 있던 다음 마침내 집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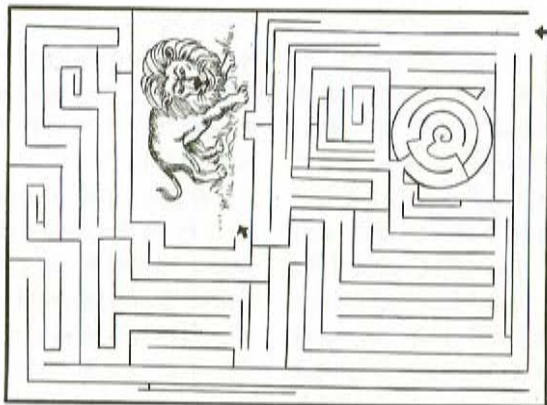
왔으나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그는 휠체어로부터 두 손으로 잡는 보행 보조기로 걸을 수 있을 만큼 발전했는데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한 손으로 잡는 보조기로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스티브가 할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했으나 스티브는 다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는 그 힘든 작업을 계속한 끝에 마침내 아무 보조기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티브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에게는 선교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큰 목표가 있었으므로 그는 학교 공부와 복음에 관해서 더 배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감독님은 스티브를 선교사로 내보내는 것에 대하여 약간 회의적이었으나 계속해서 그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스티브는 매일의 선교 사업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지를 평가받기 위해서 솔트레이크시에서 2주일 동안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잘했으므로 집으로 돌아온 다음 일요일에 선교사 지원서를 냈으며 곧 켈리포니아주 아카디아 선교부에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생명도 부지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 더 기뻐했습니다.

스티브는 자기 가족과 자신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모범입니다. 그는 목표를 달성하는 의지력을 갖고 있으며 상황이 좋지 않을 때라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의지력이 있습니다. 스티브는 우리 모두에게 신앙을 갖고 계속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모범으로서 있습니다. 나는 그의 누나가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

사자 추적하기

프란시스 카아피 미드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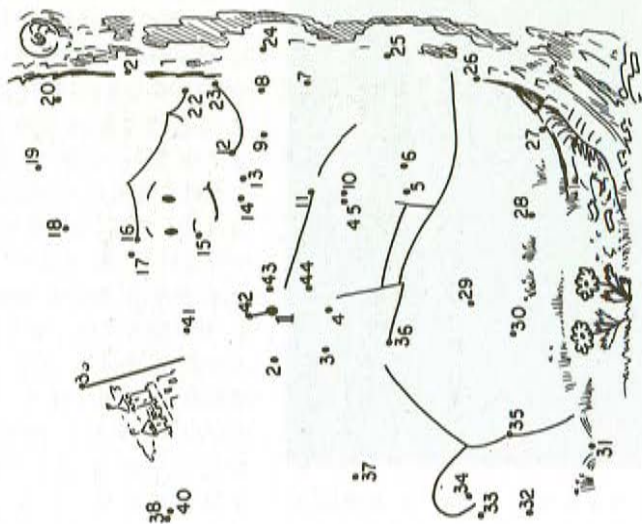


여러분이 이 사자의 사진을 찍으려는 야생 사진 작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로의 밑바닥의 화살표가 있는 곳에서 추적을 시작하세요.

심심풀이

점잇기

로버타 엘 페어럴



친구가 친구에게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제넷 피터슨이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와의 개인 접견에서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유타주 솔트레이크시에서 여섯 자녀가 있는 가족의 외아들로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교회로 개종한 분이었으며 어머니는 개척자 가족의 후손이었다. “저는 개종자가 갖고 있는 신신함과 감사와 개척자 조상의 존진함을 모두 물려받았습니다.”라고 맥스웰 장로는 말씀하신다. “저는 훌륭하게 양육하는 가정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저는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의 누이들은 저에게 아주 친절했으며 저는 그들의 보호를 느끼면서 또한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으

며 시력에 약간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해 나가는 로이스가 특히 그랬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면에서 별로 넉넉치 않았으나 정말로 중요한 것에 있어서는 부자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땅이 많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모든 것을 거기에서 다 해결해 냈습니다. 우리에게는 닭과 소와 돼지가 있었습니다. 돼지를 키움으로써 저는 일하는 방법을 배웠고 또한 저는 추수의 법칙도 배웠습니다. 또한 농부는 돈을 벌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돼지를 팔고 그 사육비를 계산해 보면 거기서 나오



는 이익은 매우 적었으며 때로는 이익이 전혀 없었습니다.”

맥스웰 장로는 자신이 키운 돼지가 입상하여 받은 리본 상패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담요에 핀으로 꽂으면 그 리본이 담요 한 장을 다 덮는다고 하신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 리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도 그 담요를 갖고 있습니다.”

“농장 일에서 제가 좋아하지 않았던 부분은 일에 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소의 젖을 짜거나 가축에게 먹이를 주고 나면 밤에도 그 일을 또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농사를 위해서 관개 용수를 사용할 차례가 한 밤중에 올 때도 흔히 있습니다. 그것은 힘든 일이었으나 좋은 수양도 되었읍니다.”

맥스웰 장로의 가장 어릴 때 기억 가운데 하나는 “신권의 권세가 작용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한번은 생후 육주밖에 안된 여동생이 숨이 끊어진 다음 거의 죽었다가 신권의 권세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읍니다. 동생은 백일해에 걸려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런 병을 고칠 약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신권의 권세를 여러 번 보았으며 그것을 제가 설명을 못하지만 그것이 권세에 한 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맥스웰 장로의 어머니가 그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어머니는 맥스웰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었을 뿐 아니라 그가 문학을 사랑하도록 도와 주었고 독서를 권장했다. 맥스웰 장로는 특히 비밀의 정원을 좋아했다. “비밀의 정원이거나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유괴당한



자이거나 제가 어릴 때 읽는 그런 책에
는 인생에 관한 모험과 흥분을 느끼게 하
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전반적인
목적과 거룩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
다. 어떤 것은 옳았고 어떤 것은 틀렸습
니다. 저는 사람들이 오늘날 일부 세상
적인 가정에 널리 퍼져 있는, 그 점점 더
깊어지는 절망감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
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에는
주님이 계시며 그가 모든 것을 관리하신
다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의문이 없었습
니다. 이런 관념이 제가 읽은 문학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정치
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을 읽는 데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맥스웰 장로는 자기 부친이 와드 서기
로 봉사하던 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금식 주일만 되면 모임이 끝난 후 아버

지께서 십일조와 금식 헌금을 세어 보시
고는 집에서 둥그런 식탁에 그 돈을 쌓으
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들어온 모든
헌금을 계산할 때의 그 헌신과 조심스런
태도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맥스웰 장로의 부친은 아들이 스포츠
에 참여하도록 격려했으며 그도 운동의
필요성을 잘 알았다. 맥스웰 장로는 모
든 운동을 좋아했으나 특히 농구와 낚시
를 좋아했다. 그의 삼촌들은 특히 그가
농구 선수 생활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으
며 맥스웰 장로가 유타 학교 최우수 농구
선수가 되게 하려고 계획하였다.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회상했다. “만 12세가 될
때까지는 우리 지역에서 누구 못지않은
훌륭한 선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낚시는 키에 상관없이 없고 흥



미만이 문제입니다. 우리집 옆에는 작은 강이 흐르고 있었으며 저는 거기에서 낚시질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아주 운이 좋아서 두 분의 증조 할아버지를 알았습니다. 당시에 그런 행운은 몹시 드문 것이었습니다. 저의 두 분의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대평원을 건너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오면서 경험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습니다. 수년 후에 저는 영국에 가서 그분들과 그분의 동포들이 떠난 작은 마을에 가 보는 특권을 갖게 되었었는데 그것이 정말로 제가 영국의 그 지역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저의 조부모 네 분을 모두 압니다.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저는 할머니들과 함께 더 오래 지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들은 모두 제가 비교적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부친께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주일 전에 침례를 드렸고 할머니에게는 훨씬 전에 이미 침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부친께서는 그의 부모님을 모두 교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맥스웰 장로는 교회 어린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즐겨 전하신다. “여러분이 자신을, 현재의 자신으로서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할 일을 갖고 계시며 여러분이 현재는 그 일에 관하여 모를지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큰 모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젠가는 성취될 예언에 관하여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많은 것이 실제로 성취될 시기에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를 조금씩 조금씩 알려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그 동안 해 왔어야 하는 것으로써 쉬운 것은 모두 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굉장한 모험의 시기에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험의 시기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 왔으며 여러분은 잘 해낼 것입니다. *

말없는 친구

지인 더블류 피트맨



맨디는 나무 밑으로 책을 떨어뜨리고는 신나서 울타리로 달려갔다. 옆집에 큰 트럭이 지금 막 커브를 돌아 들어온 것이다.

맨디는 두 남자가 트럭에서 가구를 내리는 것을 자세히 지켜 보았다. 그녀는 새 이웃에 자기 연령의 소녀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현재 이웃의 다른 아이들은 모두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었다. 자기 또래의 말할 친구가 있다면 참

좋은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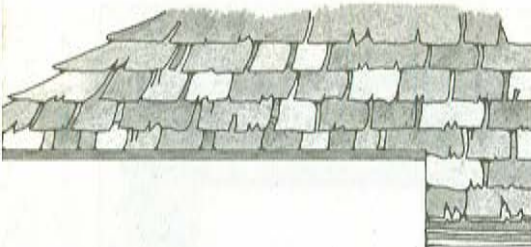
맨디가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큰 트럭 뒤로 자동차 한 대가 들어왔다. 남자와 여자가 한 사람씩 나오고 바로 맨디만한 크기의 소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맨디는 “애!” 하고 불렀다.

그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맨디는 다시 “애!” 하고 불렀다.

그 부모는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남자



들과 이야기하느라고 바빴으며 그 새로운 소녀는 집만 보고 있었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멘디는 그 소녀가 부모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자 실망했다. 멘디는 한숨을 쉬고 다시 나무 밑에 앉아 책을 읽으려고 했다. 그러나 집중할 수가 없었다. 멘디는

새로운 소녀가 다시 집 밖으로 나오는지 보려고 살피는 데 너무 바빴다.

그 트럭의 짐을 거의 다 내렸을 때에야 그 이웃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다. 멘디는 울타리로 달려가서 다시 시도해 보았다. 멘디는 큰 소리로 “애!” 하고 소리쳤다.

그 새로운 소녀는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들었다. 어머니는 그 소녀에게 손짓을 해서 멘디를 가리켰다. 그 소녀가 돌아보고 미소를 지었다.

자, 이제 훨씬 나아졌어. 아까는 무얼 생각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내 말을 못 들었던게 분명해, 라고 멘디가 생각했다.

“내 이름은 멘디야, 네 이름은?”

그 새로운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몸을 돌려 어머니에게 손짓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두 사람이 함께 멘디가 서 있는 울타리로 왔다.

“안녕 멘디야, 나는 헨더슨 아줌마이고 애는 캐롤이란단.”

“안녕, 캐롤.”

“캐롤은 수줍게 웃었으나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헨더슨 아줌마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캐롤이 너에게 말하지 않는 것을 용서해 주기 바란다. 애는 태어날 때부터 귀가 안들린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잘하지 못한단다. 그렇지만 네 친구가 되고 싶어하리라는 것은 알아.”

헨더슨씨가 부인을 불렀기 때문에 그 아줌마는 즉시 트럭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캐롤은 울타리 옆에 서서 계속해서 멘디에게 미소를 보였으나 그녀의 시선은 마당 너머로 모든 것을 다 쳐다보고 있었다.

맨디는 그녀의 얼굴이 당황해서 빨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이 되었다.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지? 캐롤과 나는 하루 종일 앉아서 서로 미소만 보내고 있을 수는 없잖아.

갑자기 캐롤이 몸을 돌려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그는 도움을 부탁하는 몸짓을 했다. 아빠는 그녀에게 다정스런 미소를 띄며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책을 한 권 꺼내서 딸에게 주었다. 캐롤은 울타리로 달려와서는 문을 가리키면서 묻는 듯한 표정으로 맨디를 쳐다보았다.

맨디는 “들어오고 싶니?”라고 물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더니 내가 얼마나 바보같은, 저 애는 내 말을 못듣잖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캐롤은 맨디를 빨리 쳐다보고 있었으며 맨디가 하는 말을 이해했다. 캐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맨디도 고개를 끄덕이고 캐롤이 문을 향하여 뛰어가서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캐롤은 즉시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앉았다. 그리고는 맨디에게 오라고 손짓했다.

맨디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으나 캐롤이 자기 옆의 땅을 손으로 가볍게 두드렸으므로 맨디는 옆에 앉아서 캐롤이 책을 펴는 동안 나무에 기대 앉았다.

캐롤은 책에서 나무라는 낱말을 가리키고는 그들이 기대 앉은 나무에 손을 갖다 대었다.

맨디는 “나무 말이냐?”라고 물었다.

캐롤은 맨디가 이해했다는 것을 알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캐롤은 킁킁거리기 시작했으며 곧 맨디도 킁킁거렸다. 그들은 둘 다 너무 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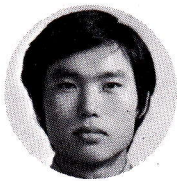
다가 함께 뒤로 넘어져서 나무에 머리를 부딪쳤다. 맨디가 그 책에서 아야하는 글자를 찾아 내었다. 캐롤은 너무 웃어서 뺨에 눈물이 다 흘렀다. 이것 참 재미있겠는대라고 맨디가 생각했다. 맨디는 책에서 친구라는 단어를 가리키고는 힘껏 캐롤을 껴안아 주었다. *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40기 수료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40기 훈련을 마친 9명의 선교사들이 각각 임지에서 봉사중이다. 이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병학 장로(구포 지부-부산 서 스테이크) 박 창환 장로(여수 와드-광주 스테이크) 오 진용 장로(풍향 와드-광주 스테이크) 김 석주 장로(방어진 와드-부산 스테이크) 조 택규 장로(동 전주 지부-전주 지방부) 조 용현 장로(농성 와드-광주 스테이크) 김 택수 장로(상당 와드-청주 스테이크) 김 정희 자매(신길 와드-서울 서 스테이크) 김 평수 자매(군산 지부-전주 지방부) 이들 중 박 창환 장로는 서울 서 선교부에서 그의 누나인 박 덕이 자매와 함께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

장 영연 형제 국무총리 상 수상



서울 서 스테이크 시흥 와드 소속의 장 영연 형제는 지난 1983년 10월 10일 금성 "패미콤 30"(CUSTOM, IC)의 개발로 국무총리 상을 받았다.

주식회사 금성사에 근무하고 있는 장형제는 10개월 간의 노력 끝에 영예의 상을 받게 되었으며 가족으로는 부인인 신 영숙 자매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원주 지부 서울 방문



1984년 2월 3일, 원주 지부(서울 선교부)에서는 "교회 회원 및 구도자들로 하여금 회복된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고, 앞으로 건축될 원주 지부의 새 건물에 대하여 준비를 하게 함으로써 신앙적인 발전을 도모함"이라는 목적으로 '서울 방문 모임'을 계획하여, 회원과 구도자를 포함한 37명이 이 옥재 지부장의 인솔 하에 전세 버스로 용두 와드→동신학 연구원→신당 와드→한국 관리 본부→청운 와드→서울 선교부→번역 출판부→서울 신전 건축 현장→서신학 연구원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각 방문지는 구정 연휴로 대부분 문을 닫았지만 서울 선교부장단의 특별 협조 요청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훌륭한 방문이 되었다. 또한, 버틀러 서울 선교부장, 동신학 연구원의 조 만구 교수, 서신학 연구원의 김 차봉 원장의 말씀과 특히 건축 중인 서울 신전 내에서 신전 건축 책임자인 와델 형제로부터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큰 수확이었다.

원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간증 모임을 가졌는데, 영적으로 크게 변화되고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모임이었다고 모두들 입을 모았다. *